

<하기 글은 2017년 7월 18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소통 협의회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룬다!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7월 정기회의

어느덧 반이 훌쩍 지나 가버린 2017년! 여러분은 연초에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는 ‘소통과 화합의 2017년’을 만들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7월,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정기회의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지난 7월 12일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다는 초복이었는데요.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띠며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4일, 평택캠퍼스 출하식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7월 정기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개월간 민원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화성캠퍼스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야간 조명과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는데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삼성전자는 체육시설에 소등타이머를 설치해 매일 오후 9시 30분에 조명을 일괄 소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화성캠퍼스 내 자재창고에서 한밤중에 큰 소리로 울린 사이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 발생 시 인력 대피용으로 설치된 사이렌이 오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삼성전자는 사이렌의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을 교체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평소 주민들의 지적이 많은 불법주차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편사항에 대해 삼성전자 임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에게도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 배려하는 이웃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개월간 삼성전자가 추진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다양한 활동 중에서 삼성전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특히 관심을 보였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지역 탈북민 50명에게 삼성전자 임직원이 모은 기부금으로 직업교육 훈련비를 지원해 그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활동입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2016년 나눔워킹페스티벌 기금 전달식 △행복릴레이 사랑의 집 △소원별희망찬사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여름김장 축제 △환경자매학교 운영 등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쳤는데요.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소통협의회 위원들로부터 ‘환경자매학교’ 운영에 인근지역 학교를 포함시키자는 요청이 있어,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하반기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오는 8월에는 ‘용인/화성시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환경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용인시와 화성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인데요. 7월 23일까지 소통블로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합니다.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7월 정기회의는 소통협의회 위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는데요. 서동영 오현영 위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현영 위원 /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오늘은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인데요. 지역주민 모두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통을 돕는 든든한 일꾼으로 활약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에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7월 정기회의의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절반이 채 남지 않은 2017년, 소통과 화합의 한 해를 만들어갈 소통협의회 위원들의 활약에 많은 기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